

韓・中・蘇간의 經濟交流와 北韓의 經濟展望

李 源 俊*

目 次

- | | |
|----------------------|------------------|
| I. 序 論：北韓 經濟原理의 變遷課程 | 政策 |
| II. 韓國과 蘇聯과의 經濟交流 | 2. 北韓의 經濟計劃過程 實相 |
| III. 韓國과 中國과의 經濟交流 | 3. 北韓의 經濟展望 |
| IV. 北韓의 經濟計劃과 그 展望 | V. 結 論 |
| 1. 北韓의 經濟計劃制度 및 經濟 | |

I. 序 論：〈北韓 經濟原理의 變遷過程〉

北韓은 “社會主義 經濟의 토대를 強化하고 北韓地域을 革命기지로하여 韓半島를 共產化할 수 있는 經濟力을 強化한다”는 基本命題하에 北韓의 經濟建設을 推進하여 왔다. 그리고 이러한 基本命題하의 北韓의 社會主義的 經濟計劃을 착수한 것은 1947년 2월 20일 ‘北朝鮮 道市郡 人民委員會 大會’에서 1947년도 人民經濟計劃을 採擇한데서 부터 시작되었다. 이 당시 北韓의 經濟計劃은 短期計劃으로서 蘇聯式 經濟計劃을 모방한 것에 불과하였다. 北韓의 이러한 經濟計劃은 1950년대를 맞기 전에는 주로 南侵準備를 위한 經濟資源의 動員에 주력하였으며 6·25 南侵이 시작된 이후에는 戰爭遂行을 위한 戰時動員體制로 經濟力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6,25 南侵에 실패한 北韓은 1953년 休戰이후 戰後復舊 3個年計劃을 수립하면서 부터 ‘重工業優先的 復舊와 發展’이라는 經濟政策을 내세

* 建國大學校 教授・經濟學博士

은 뒤 農業의 集團化를 실현시킨 1950년대 後半의 5個年計劃에서도 ‘重工業優先政策’을 고수하면서 軍需産業 중심의 經濟建設에 광분하였다. 이어 1960년대에는 ‘千里馬運動’을 전개하면서 소위 人民經濟 7個年計劃과 3個年 연장기에는 ‘四大軍事路線’을 憑藉하여 軍事와 經濟建設의 推進策’을 主要經濟政策으로 내세워 經濟에서도 軍事力 강화에 박차를 가하였던 것이다. 1970년대에 들어서서는 平和共存 ‘무드’의 國際情勢하에서 수립된 人民經濟 6個年計劃期の 工業構造에서도 80퍼센트 이상을 重工業에 偏重시킴으로써 南北對話의 여망을 저버리고 계속하여 軍事力を 강화하는 經濟政策을 고수하여던 것이다. 계속하여 실시된 第2次 7個年計劃期나 현재 推進중인 第3次 7個年計劃期에도 10大展望目標를 내세워 지나친 重工業偏重에서 勞動者·農民들의 消費生活의 억제로 나타난 不平不滿을 다소 해소하려는 現實主義的 經濟政策을 내세웠다. 그러나 이미 重工業 중심의 機械設備과 수백만의 軍事力を 維持해야 한 基本政策을 전반적으로 改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骨格의 變化는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北韓의 經濟計劃과 經濟政策 등의 變遷課程은 政治經濟原理와 일치되고 있는 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보다는 그 내면에는 軍事經濟의 原理를 기본적으로 반영시키고 있는 것이 特徵이다. 北韓은 經濟政策과 經濟建設 및 經濟行政 등 모든 經濟課題의 活動에 있어서 政治的·思想的·軍事的 의의를 논하고, 政治·思想과 軍事力 강화의 관점에서 판단하며, 이러한 要件에 부합되는 내용을 전제로 經濟建設과 生産에 반영하는 經濟計劃하에서 계속적으로 軍需産業 중심의 重工業優先政策과 軍事력과 經濟建設의 併進策을 내세운 것은 곧 ‘主國防과 後經濟建設이라는 政治·軍事경제의 原理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려는데 있는 것이다.

따라서 本論에서는 이러한 北韓의 經濟計劃과 經濟政策의 實現過程에서 政治·軍事經濟의 原理를 어떻게 반영하였으며 그 經濟發展의 水準은 어느 程度이며, 앞으로의 經濟展望은 어떠한가를 최근의 韓·中·蘇의

關係改善과 經濟交流의 環境變化와 關聯하여 考察해 보고자 한다.

II. 韓國과 蘇聯과의 經濟交流

88 서울 올림픽에서 第1位를 차지한 蘇聯은 改革政策을 내세운 고르바초프 書記長의 등장 이후 蘇聯市民生活와 관련된 소비재 공업기술부족을 메꾸기 위하여 韓國의 공업기술을 도입한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지난 6월 개최된 제 19차 全蘇黨代表者會議에서 지적한 바 있다. 즉, 韓國은 공업선진국 10위 이내에 들어가 있다. 우리는 다른나라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배우지 않으면 안된다'고 역설한 점과 더불어 현재 蘇聯은 그들의 풍부한 地下資源과 原資材를 韓國에 수출하고, 韓國으로부터는 세계적인 수준에 오른 섬유류와 신발류·가전제품을 수입하고 있다. 韓國과 蘇聯간의 초기무역은 일본을 경유한 수출입형태로 이루어졌으나 지금은 부산에서 '나호트카'항로를 이용, 직접 거래하기에 이르렀다. 물론 직접교역의 역사로는 1970년대초 우리상품이 서구와 동구 등으로 시베리아철도를 이용하면서 시작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韓國과 蘇聯간의 經濟交流는 1988년도에 들어서면서 본격화 되었으니 그 실례가 지난 3월 蘇聯의 모피전문업체인 '진도'가 모스크바에 모피의류가공공장을 합작건설키로 합의했다는 소식과 더불어 '대우'가 '블라디모스톡'에 韓・蘇 합작방직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일본신문들의 보도에서 밝혀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5월하순 레닌그라드에서 개최던 전자제품 '쇼'가 끝난 뒤 蘇聯貿易協會 고위관계인이 韓國企業측에 양국간 무역사무소 설치를 제의해 옴으로써 서울올림픽이 끝나면 어떠한 형태로든 韓・蘇간의 무역사무소가 설치된 것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蘇聯은 이미 서울올림픽 기간동안 大韓航空機의 蘇聯領空통과를 허용했고, 韓國은 蘇聯航空機의 韓國領空통과를 허용하였는데 이는 경제교류를 위한 첫단계로서 兩國航空機의 민간항로 개설의 전초전이라 할 수 있다. 한편 蘇聯은

2천억루블(미화 4천억달러)의 시베리아 개발계획에 韓國의 토목기술과 시공인력 등을 필요로하고 있고 蘇聯의 풍부한 지하자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韓·蘇간의 관계개선과 교류는 필연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더구나 蘇聯外相 세바르드나제가 1988년 9월 27일 유엔총회연설에서 “소련은 국제관계에서 脫이데오르기를 추구하는 한편 외교정책에 있어서는 理念差異의 요인배제 노력을 지지한다”고 선언한 점등은 88서울올림픽을 계기로 東西和解의 場이 정착되어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보다 앞서 盧泰遇 大統領의 7·7宣言이 이러한 상황과 같이하므로 韓·蘇간의 경제교류가 增進될 것으로 展望된다.

이러한 韓·蘇간의 狀況變化로서 한 例를 보면, 蘇聯과 亞細亞·太平洋地域 國家들간의 관계를 重點論議하기 위해 1988년 10월 蘇聯極東地域 港口都市인 ‘블라디보스톡’에서 개막된 國際會議에서 韓國의 蘇聯 ‘시베리아’ 開發參與問題가 具體的으로 論議될 것이라고 신문에 이미 보도된 바 있다.¹⁾

이러한 蘇聯內에는 스탈린 時代부터 고르바초프까지 歷代 書記場 6명을 도와 26년간이나 蘇聯 外交를 담당해 왔던 前外相 그로미코가 最高會議幹部會議議長職을 물러나면서 고르바초프 書記長의 ‘新思考外交’는 더욱 과감하게 推進될 것이 確實視되고 있다.

특히 ‘平和共存’과 ‘相互協力’을 모토로 하는 고르바초프 書記長의 ‘新思考의 外交政策’은 美·蘇 兩強大國간의 패권주의의 반대와 軍事對決 및 軍備增強 경쟁의 지양, 積極的인 地域紛爭의 解決, 下位同盟國家들의 自主性の 尊重 등으로 可視化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고르바초프 서기장의 ‘新思考外交政策’은 1988년 9월 27일 蘇聯 세바르드나제 外相의 UN총회 연설에서 잘 정리되어 발표되었다.

1) <每日經濟新聞> 1988년 10월 4일자.

즉 세바르드나제 外相은 國際關係의 보편적 원칙으로 平和共存을 천명하면서 國際社會에서 계급투쟁은 끝났다고, 脫이데오르기 宣言을 했다. 이처럼 고르바초프 書記長의 새로운 政治的思考가 세브르나제 外相을 통해 대변된 이 연설은 西方國家들에게서 ‘革命的이고 歴史的인 變化’라는 찬사를 받았다.²⁾

고르바초프 書記長은 집권 3년 6개월간 美·蘇頂上會議을 4 차례나 가졌는데, 1987年末에는 美·蘇간 중거리핵전력(INF)폐기 條約을 체결하여 美國 레이건 大統領과 함께 올해 노벨平和賞 후보에 오를 정도로 平和政勢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亞細亞·太平洋地域을 向한 蘇聯의 平和外交는 더욱 두드러져 있다. 이것은 蘇聯도 亞細亞國家라는 것을 밝힌 1986년도 ‘블라디보스톡宣言’에 이어 1988년 9월 16일에 亞·太地域에 平和와 安保를 위한 7個項을 제시하여 亞·太地域에서의 蘇聯의 위치를 강화하려는 努力에서도 알 수 있었다.

이리하여 55년간이나 外國人들의 出入을 금지해 왔던 蘇聯의 太平洋 함대기지인 블라디보스톡에 35個國에서 200餘名の 政治人과 學者가 들어와 3日간의 亞·太地域問題에 관한 國際會議을 열기에 이르렀다. 이것은 블라디보스톡을 ‘東쪽의 窓’으로 구상하고 있는 蘇聯의 對外開放政策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이 會議에서 蘇聯 로가초프 副外相은 亞·太地域에서 韓國을 비롯한 國家들간의 확고하고 安定된 協力體制를 구축하는 것이 이 地域에 對한 外交努力的 궁극적인 목표라며, 亞·太地域과의 協力體制”를 再三 강조하였다. 따라서 첫째, 蘇聯은 亞·太地域에서 海軍力을 증강하지 않겠다는 諾의를 시작하였고, 둘째 蘇聯·中國·日本·韓國·北韓을 포함한 多者間の 會議계약, 셋째, 美軍이 필리핀기지에서 철수한다면 蘇聯은 坎란灣을 포기할 容의가 있다고 한 고르

2) 같은신문, 1988년 10월 4일자.

바초프 書記長의 ‘시베리아宣言’을 提案에서 實踐으로 옮기는 過程으로
풀이 된다.

이러한 蘇聯의 일련의 對外協力構想은 蘇聯이 이미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필리핀 등에서 구상무역合作 등을 제안하여 東南亞細亞國家와의 經濟協力을 強化하고 있는 한편 日本과는 오는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모스크바에서 日·蘇원탁회의와 12월 17일부터 19일까지 東京에서 日·蘇 外相會談 日程을 잡아 놓고 있는데서 나타나고 있다.

한편 蘇聯은 亞細亞에서 主導權다툼을 벌여온 中國과도 和解를 圖謀하려고 努力하고 있어 1988년 12월末에 中國外交部長 錢其琛이 訪蘇한 後에 來年 初에는 세바르드나제 外相이 答禮로 中國을 訪問할 豫定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亞·太地域 多者間 協商제안의 對象國들과 접촉을 활발히 모색하고 있다.³⁾

여하튼 蘇聯이 韓國을 비롯한 亞·太地域 外交政策에 활기를 불어넣은 ‘시베리아宣言’이 亞·太地域 긴장완화를 위한 協力體制構築에 積極性を 띠고 있음은 韓國과 蘇聯간의 關係改善과 交流가 밝아질 것으로 내다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1988년 10월 4일 盧泰愚大統領의 國政演說에서 “서해안개발과 동해안지역의 개발계획도 수립,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함으로써 中國과의 교류를 겨냥한 서해안개발계획과 더불어 蘇聯과의 직접교역을 겨냥한 동해안개발계획을 동시에 발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여기에는 동해안북부에 있는 설악, 강릉, 태백지역과 치악·춘천 등 내륙 관광권역을 개발중심지역으로 설정하여 놓고 있고 한편으로 臨海工團造成을 한다고 하지만 강릉과 속초사이 양양군 학포리에 영동국제 공항이 들어서고 東西고속전철이 들어선다는 것은 韓·蘇간의 經濟交流를 예상하여 蘇聯과 뱃길로 5~6시간밖에 안걸린다는 지역적인 이점때

3) <每日經濟新聞> 1988년 10월 4일자.

문에 直交易의 가능성 때문에 공단개발과 시멘트·석탄수송港으로 이용하고 있는 東海港을 컨테이너 專用부두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前述한 바와 같이 最高會議幹部會議長이었던 안드레·그로미코가 1988년 10월 10일경부터 北韓을 방문할 豫定이었으나 10월 1일 權力構造改編을 통해 保守派를 몰아낸 蘇聯共產黨 書記長겸 最高會議幹部會議長 미하일·고르바초프가 北韓을 공식방문할 것이라는 蘇聯 관영 「타스」통신이 10월 6일 보도한 바 있는데 이번 고르바초프 書記長의 北韓방문은 여러가지 意味가 있다고 하겠으나 그 중의 主要한 內容은 ① 蘇聯의 서울·올림픽 참가와 ② 韓國과 헝가리간의 公式的인 關係樹立, ③ 蘇聯의 對韓經濟關係樹立可能性을 밝힌 ‘그라스노야르스크 宣言’을 비롯한 ④ 蘇聯의 경제특구설정 등 ‘開放무드’속에서 塗炭속에 빠진 北韓을 위로하고 南北韓간의 關係改善과 交流 등의 對外開放을 권유할 것으로 보인다.⁴⁾

더구나 88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韓國과 헝가리간의 常駐代表部 相互設置라던가 유고의 貿易事務所設置 등으로 東歐圈을 통한 일종의 ‘충격요법’으로 北韓이 開放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도록 환경을 조성하려는데 主要目的이 담겨 있을 곳으로 보는 것이다.

이와 같이 1988년에 들어 韓·蘇關係는 낙관적이고 희망적인 展望이 밝아지고 있다고 하겠다.

III. 韓國과 中國과의 經濟交流

最近 韓國과 中國관계도 韓·蘇관계 못지 않게 희망적이다. 1986년 11월 당시 中共黨總書記 胡耀邦은 韓國과 中國간의 貿易事務所 設置를 권

4) 〈韓國日報〉 1988년 10월 8일字.

유한 日本의 나가소네 首相에게 “中國이 韓國과 직접교역에 나선다면 北韓에 대한 中國의 발언권을 잃게 될 것이다”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2년이 채 안된 지난 8월末 韓國에 온 中國 山東省 投資誘致團長 李 瑜 貿易協會會長과 韓國貿易公社社長과는 다음과 같이 교류에 대하여 합의 한 바 있다.

- (1) 年內 무역 사무소의 설치
- (2) 외환결재
- (3) 투자
- (4) 직항로 개설 및 합작선사 설립
- (5) 관광개발
- (6) 인적교류의 확대⁵⁾

이상과 같은 6個項을 합의 한 韓·中간의 貿易事務所의 형태는 양측의 홍콩 현지법인이 서울과 中國 淸南 또는 靑島에 支社를 두는 방식으로 地方省단위를 택하였다. 이러한 韓·中 兩國간의 直交易은 빠르면 年內에, 늦어도 1989년까지는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양국의 交易量을 보면 中共이 北韓과의 제약적인 관계에도 불구하고 1987년 14억달러에 이르렀고, 1988년도에는 30억 달러가 넘을 것으로 보아 1980년 양국의 무역통계에 나타난 1억 8천만달러에 비하여 약 8.2배로 급증한 것으로 볼 때에 韓·中간의 경제교류는 아세안게임과 서울 올림픽의 兩大 스포츠 행사와 교류의 확대가 계기가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979년 美國과 中共이 ‘평 품外交’를 시작하면서 1980년도에는 直交易 1억 8천만달러에 이르던 것이 韓·中간의 交易量은 1981~83년까지 北韓의 강력한 항의로 1억 3천만에 머물렀으나 1985년도에는 12억달러, 1986년도에는 13억 9천만달러, 1987년도에는 14억달러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1990년대末까지 40억에서 5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5) <총력안보> 大韓民國在鄉軍人會, 1988년 10월號 p. 40.

로 전망하고 있는데 여기서 兩國간의 원만한 외교적 진전이 성립된다면, 貿易量은 약 1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희망적인 韓·中간의 교역확대는 韓國企業人들의 10억인구의 中共市場에 대한 적극적인 공략작전에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참여한 韓國企業들은 대형종합상사에서 中小人形製造業體에 이르기까지 30餘個業體의 기업들이 中國大陸의 10억인구를 가진 거대한 시장을 뚫기 위한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다.

이처럼 韓·中간의 경제교류에서 또한 두러지게 나타난 것은 中共의 기업인들도 올 상반기에 이미 60餘名이 다녀가면서 中國商品 또한 대량 수입되었다. 中國商品은 주로 원자재를 비롯하여 석탄이 가장 많아 유·무연탄 수입만도 200만톤에 이른다. 이러한 交易과 더불어 中國은 최근 山東省과 遼寧省에서는 정식으로 투자유치단을 보내왔는가 하면, 지난 6월에는 섬서성 황하 T·V 공장, 中國 전자수출입공사 고위인사 8명이 「大宇電子」 초청으로 來韓 仁川·구미·光州 등지의 大宇系列 전자·자동차 공장을 시찰하기까지 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추세는 韓·中간의 交易이 홍콩 등지를 경유하는 간접교역방식에서 이제는 韓國企業과 中國會社가 직접계약을 하고, 中國港口에서 韓國港口로 직접 통하는 交易方式으로 兩國간의 이익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韓國의 수입창구는 石炭公社를 비롯한, 雙龍, 大宇, 선경, 三星物產, 럭키금성상사 등이고 호남정유, 극동석유 및 경인에너지 등은 中國產 원유를 도입하여 中東 등지에서의 위험한 항로와 비싼 운임을 절약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狀況과 더불어 最近의 中國과 韓國과의 관계는 급진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希望的인 것은 1970년대 中盤 中國이 '4大現代化'의 國家目標를 설정한 後 '폐쇄된 中國'에서 '開放된 中國'으로의 轉換을 가져오면서 韓國이 對中國과의 關係가 비교적 급진전한데 있다. 더구나 經濟的 측면에서 中國의 정책을 뒷받침하고 있는 理論 '國際大循環論'에서 發見할 수 있는 것이다. 이 '大循環論'은 中國의 傳統的인 內向的

‘自力更生政策’을 탈피하고 外向的發展을 圖謀하여 經濟的 實利를 極大化 하자는데 있으므로 中國은 勞動集約型的 製品을 輸出해서 資本과 先進技術을 導入하여 重工業發展을 圖謀한 後, 다음 段階로 農業部門을 支援한다는 것으로서 勞動集約的輕工業에서 技術集約的重工業으로 그리고 農業發展이라는 3段階로 이루어지는 經濟發展論을 뜻하는 것이다.⁶⁾

이러한 中國의 ‘經濟大循環論’적 經濟發展戰略에 따라 韓國과 中國간의 關係改善 내지 經濟交流는 希望的인 展望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최근 中國 經濟專門家들은 이러한 中國의 ‘經濟大循環論’이 원활히 적용될 경우 韓國으로부터의 投資유입의 規模는 홍콩보다 훨씬 클 것으로 豫想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中國의 ‘4大 現代目標’ 달성을 위해서는 韓半島를 에워싼 國際情勢가 安定되어야 中國의 開放化政策의 成攻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韓半島情勢 安定을 위해서는 中國에 隣接되어 있는 中國과의 關係改善이 이루어져야 中國 經濟發展에 實利를 追求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韓·中關係改善과 發展에 中國과 血盟關係에 있는 北韓이 장해요인으로 常存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中國은 蘇聯처럼 北韓에 대해 많은 經濟援助를 해 줄 能力이 없기 때문에 韓國과의 關係改善이나 經濟交流에도 상당히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 없으므로 政府次元에서의 交流는 상당한 時間을 要할 것이다. 즉 中國은 對韓 經濟依存도가 높은 反面에 對北韓과의 政治·外交的 依存度때문에 蘇聯과 같이 대담한 韓·中關係改善에 선뜻 나서지 않을 것이지만 兩國의 地政學的 位置때문에 꾸준하고 長期的인 안목의 經濟交流가 展開될 것이다. 現在의 國防情勢는 脫理念的 平和共存을 追求하고 있기때문에 政治經濟 위주에서 經濟政治위주로 탈바꿈을 하고 있어 韓·中關係는 相當히 好轉될 것이다. 이제 中·蘇關係와 美·蘇關係가 好轉되고 있어 北韓이 韓·

6) 中國經濟, 韓國經濟新聞社, 1988년 9월 12일字.

中關係에 否定的으로 影響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되어 있는 狀況이다. 더구나 中國은 단순한 輕工業商品의 수출위주에서 高價의 輕工業製品과 一部重工業製品으로 擴大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中國의 長期經濟發展計劃에 따라 韓國과 같이 産業設備·機械分野와 電氣·電子分野의 育成에 중점을 두고 있어 韓·中간의 經濟交流과 同時에 競爭關係는 不可避해진 것 같다. 이러한 韓·中간의 關係에 대하여 1988년 9월 6일 韓國政府當局으로서의는 최초로 對中國 경제교류현황과 山東省政府의 訪韓결과에 관한 공식자료를 내놓은 바 있다. 이 자료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86 아세안게임과 88 서울 올림픽을 前後해서 兩國의 경제교류와 더불어 中國은 韓國을 經濟開發의 모델과 協力者로서 美國이나 日本 등의 先進諸國과의 協力增進以上으로 協力關係를 유지하려고 하나 中國이 北韓과의 同盟關係를 고려하여 항상 일정한 거리를 두고 推進한다고 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中國은 對韓關係改善에서 ① 民間方式과 第3國을 통한 間接方式을 비롯하여 ② 점진적이면서 조용히 內實을 追求하며 ③ 經濟技術開發區와 省政府(山東省과 遼寧省 등)를 정해 開放한다는 3原則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中國의 對韓經濟交流의 原則에 따라 中國은 中國國際貿易促進委員會(CCPIT)와 中國國際信託投資公司(SITIC) 등 民間團體를 내세워 對韓交流窓口役割을 하도록하고 있고, 山東省경제사절단의 訪韓과 더불어 貿易事務所설치도 山東商會 홍콩지사의 서울事務所와 大韓貿易振興公事(KOTRA) 홍콩무역관의 淸南(혹은 靑島)사무소라고 하여 間接進出形式을 택하고 있다. 한편 銀行間 '코스'條約도 中國銀行 홍콩支店과 外換銀行 등으로 다리를 거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山東省政府 경제사절단의 訪韓결과와 관련하여 볼 때에 省政府이긴 하나 中國行政機關 최초의 公式使節團이라는 것과 韓國產商標라는 'Made in Korea'라고 表記한 점, 그리고 合作投資時에 韓國企業의 名稱을 그대로 使用할 수 있게 했다는 점, 그 외에도 山東省政府사절

단이 KOTRA와 貿易事務所를 설치하고, 出入國節次와 外換결제, 通航路開發 등에 關係具體的인 合議를 하였다는 것은 相當한 關係改善과 經濟交流의 進展이 이루어졌다고 評價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이 中國과의 經界교류가 內實을 追求하면서 進展되는 過程에 있으나 이미 韓國과 中國과는 1987 년도에 14 억 8 천 6 백만달러의 交易이 이루어졌다. 이는 1979 년 1 천 9 백만달러에 비해 무려 78 배의 증가를 보인 것이다. 韓國의 對共產圈 交易量 18 억 3 천 8 백만달러의 무려 81 퍼센트를 점하는 比率이다. 더구나 蘇聯과의 交易이 같은 해에 1 억 6 천 4 백만달러에 불과했음을 감안할 때에 對共產圈國家로서 比較的 높은 交易量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對中國間의 交易量이 1979 년부터 본격화된 이래 1987 년까지 3 억 5 천 2 백만달러로 계속 擴大되다가 1982 년에는 1 억 2 천 9 백만달러로 急冷 했는데 이는 1982 년 北韓의 公式使節團이 中國을 訪問하여 韓·中間의 交易擴大를 抗議한데서 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84 년에는 4 억 6 천 1 백만달러로, 1985 년에는 12 억 9 천 1 백달러로, 1986 년에는 13 억 9 천 5 백만달러로, 1987 년에는 14 억 8 천 6 백만달러로 每年 增加추세를 보여 1979 년 1 천 9 백만달러에 비해 무려 78 배난 增加된 것이다. 이는 곧 韓國의 꾸준한 工業發展과 經濟開發의 모델이 中國으로 하여금 脫理念的 開放政策 내지는 國益을 위하여 必要하였던 것이며, 韓國 또한 韓半島의 平和와 統一을 追求하기 위하여는 1 段階로한 中國과의 關係改善과 經濟交流가 必要한데서 온 時代的·地政學的 狀況이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狀況에 따라 1970 년대後半부터 스포츠交流가 시작되면서 1986 년에는 아시안 게임을 1988 년에는 서울 올림픽을 中國의 적극적인 協力으로 성공리에 치를 수 있었던 것이다. 對中國과의 交易은 1987 年末 현재 輸出은 8 억 1 천 3 백 2 십만달러로 1979 년도에 비해 203 배로 擴大된 반면 輸入은 6 억 7 천 3 백 4 십만달러로 45 배로 擴大되었다. 對中國으로의 輸出品目은 철강제품이 1 억 6 천 3 백 5 십만달러로 20.1 퍼센트를 열

전자관과 냉음극관·광전관이 1억 4천 4십만달러로 17.3퍼센트를, 섬유직물이 1억 1천 2백 7십만달러로 13.9퍼센트를 이루고 있으며 輸入品目은 인조섬유류가 9천 210만달러로 13.7퍼센트를, 석탄류가 7천 4백 3십만달러로 11.6퍼센트를, 아마사와 라미사가 6천 9백 1십만달러, 식물성유박이 역시 6천 9백 1십만달러로 각각 10.3퍼센트를 占有하여 大部分 석탄 등 연료와 농산물 등 1차상품이 그 大宗을 이루었다. 이러한 韓國과 中國과의 交易擴大로 1985년도이후부터는 合作投資相談이 本格化되면서 1987년末 현재는 30여개 업체가 80餘個 合作投資相談을 推進한 바 있는데 契約締結이 完了된 것은 5件에 不過한 實情인데 이는 中國의 社會間接資本이 미비한데다 工業用水供給이 不規則的이고, 勞動人력을 지나치게 顧傭할 것을 要求하는 등의 投資與件이 不利한데서 나타나는 現象이라고 볼 수 있다. 이 中 5件의 合作投資는 北京, 深圳, 福州, 汕頭, 廣州 등에 地域적으로 散在된 섬유와 電子 등의 業種으로써 그 規模는 大宇電子の 6백만달러의 福州工場 등으로 대부분 1백만달러 以下の 小規模의 投資이다. 이와같이 비록 規模는 적으나 꾸준한 경제교류로 1988년에 들어와서는 섬유와 철강·시멘트·자동차·전자·호텔産業 등 광범위한 業種에 걸쳐 15個社, 16個 프로젝트의 合作投資相談이 推進中에 있는 등 比較的 활발한 경제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어 兩國의 關係改善은 새로운 轉機가 到來되고 있음을 意味하고 있다.

IV. 北韓의 經濟計劃과 그 展望

1. 北韓의 經濟計劃制度 및 經濟政策

北韓의 經濟體制는 社會主義經濟體制로서 生産手段의 社會化를 段階적으로 實施하였다. 北韓의 公산집단이 社會主義經濟體制를 標榜⁷⁾하면

7) <自由公論> 自由公論社, 1988년 3월號, p. 85.

서도 일시에 生産手段의 社會化를 무너뜨릴 수 없었으며 또한 急激한 生産手段의 社會化를 强行함으로써 수많은 農民들로부터 頑強한 抵抗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實際로는 社會主義經濟體制를 내세울 만한 物質的 條件과 技術的 基盤을 갖추고 있지 못했던 것이다.

1946년 8월 10일 소위 '産業國有化'法令을 制定하여 約 90 퍼센트의 工場과 企業所를 國有化한데 대하여, 農業分野의 境遇는 1946년 3월 5일 '土地改革法令'으로 日本人所有의 土地와 5町步 이상의 大地主들의 土地를 沒收, 約 100萬町步를 確保하여 그중 98萬町步를 土地 없는 約 72萬戶 農民에게 조금씩 分配하기에 이르렀다.⁸⁾

그러나 北韓共產集團은 社會主義經濟體制를 指向하기 때문에 企業의 國有化뿐 아니라 農業의 集團化를 爲한 作業을 漸次的으로 進行하여 1954년부터는 農業協同組合의 組織에 着手하여 1958년 8월에 이르러 이를 完成하였다.

한편, 工業 商業部內에서 一部 殘留 私營도 社會主義的 改造의 政策으로 인하여 1957년에는 거의 다 國營 혹은 協同組合經營에 吸收됨으로써 1960년전에 이미 生産手段의 社會化를 實現하였다. 따라서 오늘날 北韓의 經濟體制는 國有와 協同組合所有를 原則으로 하는 社會主義的 所有形態를 基礎로 하여 中央集權的 計劃經濟를 實施하고 있는 것이다.⁹⁾

이러한 北韓의 經濟는 計劃經濟로서 社會主義的 經濟發展法則에 따라 蓄積과 消費의 均衡을 人民經濟發展計劃에 依하여 實行하도록 規定하고 있다.¹⁰⁾ 따라서 北韓은 經濟計劃의 一元化라는 名目으로 超中央集權的인 計劃經濟를 實施하여 왔다. 그러므로 經濟資原과 用役은 市場機構에 依해서 形成되는 것이 아니라 經濟計劃機構에 의해서 分配되고 調整·規制되고 있으므로 이는 또한 經濟政策에 絶對的 重要性을 가지게 되는데 그

8) 上揭書, p. 86.

9) 李源俊, 國防經濟力과 共產圈經濟要論, (서울: 大光文化社, 1977), p. 8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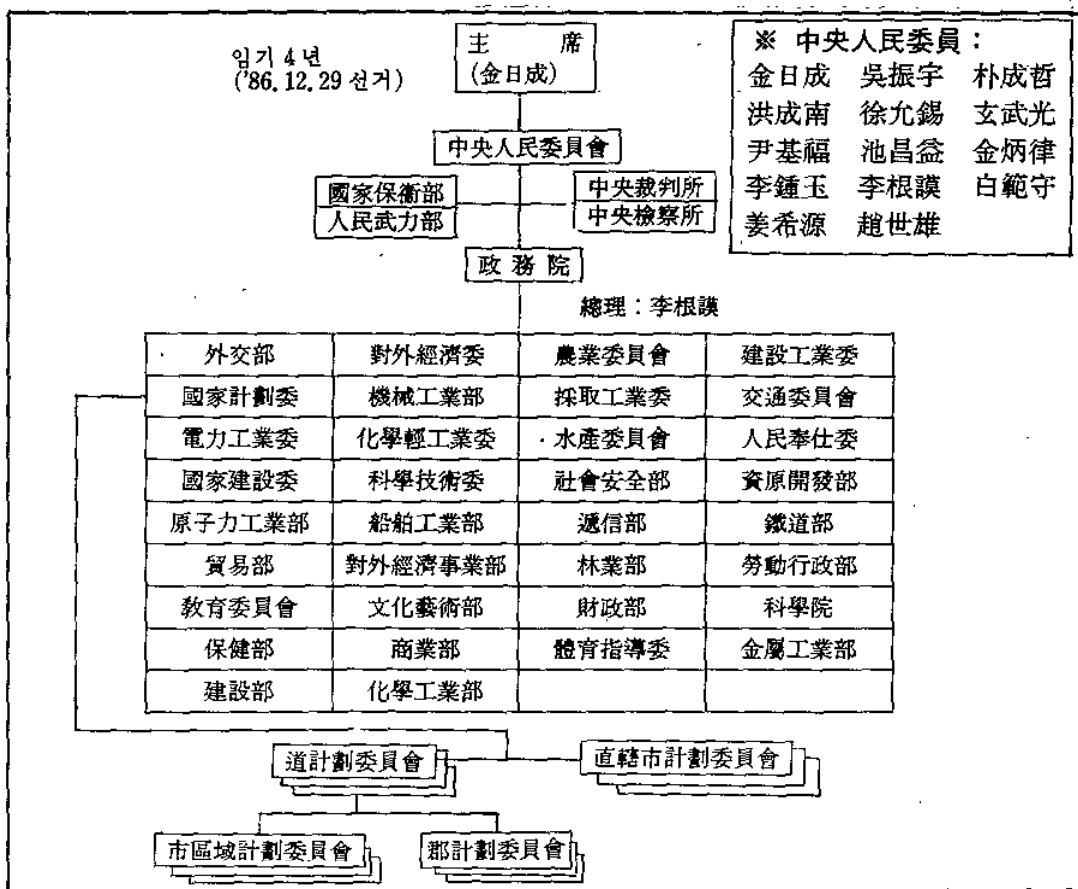
10) 北韓憲法第 31條 참조

各級 經濟計劃委員會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國家計劃委員會

北韓의 經濟計劃을 專擔하는 中央計劃機構로서는 政務院內에 國家計劃委員會가 있고 同委員會에는 政務院內의 14 위원회와 19 部 1 院의 34 個部署中 外交, 社會安全, 人民武力部가 管掌하고 있는 業務를 除外한 人民經濟全般에 걸쳐 所管別 管割局을 설치하고 있다. <표 1 참조>

<표 1> 北韓經濟計劃 및 行政機構 (1988년 9월 9일 현재)



이러한 北韓의 國家計劃委員會는 勞動黨의 經濟政策에 입각한 北韓政權의 모든 經濟計劃을 綜合作成하며, 이를 政務院會議에서 承認을 받아 各部署로 通報한다. 또한 作成된 經濟計劃案에 대하여 具體的인 實行計劃을 指導保障하여 人民經濟計劃 全般에 걸친 豫備的 決算을 행한다.

國家計劃委員會의 重要的 技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經濟의 모든 長期計劃 및 短期計劃案의 作成

- (2) 各部, 各委員會, 地方計劃機構의 計劃案의 檢討・調整
- (3) 經濟計劃의 實施에 對한 監視・檢閱 및 是正策樹立 等이다.¹¹⁾

(2) 地方計劃委員會

中央의 國家計劃委員會 傘下에 道・直轄市計劃委員會와 市(區域)・郡計劃委員會를 設置하고 있다. 이 地方計劃委員會는 國家計劃委員會의 地方出張所 形態로 常駐하면서 部門別 管理는 擔當하는 地方行政 各 部署와 農村經理委員會 輕工業委員會, 建設委員會 等의 各其 計劃을 連結시켜 該當 地域內의 生産資原을 綜合的이고 效果的으로 活用하도록 하는데 있다.

地方(道・直轄市) 計劃委員會의 技能을 보면 ① 地域內 企業所들의 經濟計劃作成 및 實行에 對한 指導統制事業 ② 地域內 經濟의 綜合的인 發展을 위한 地域的・産業部門間의 均衡을 圖謀하는 事業 ③ 設備, 資材, 努力의 豫備를 獨自的으로 確保維持하면서 計劃의 實行過程에서 惹起되는 問題를 解決하는 事業 等이다.¹²⁾

2. 北韓의 經濟政策

이와 같은 經濟計劃 制度下에서 나타난 北韓의 經濟政策의 方向은 ‘스탈린式’ 一國社會主義建設을 모방하여 주로 自體資原에 의존하는 經濟를 開發하면서 軍事力 強化에 注力, 短期間內에 重工業化를 達成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北韓의 經濟政策의 곧 南北分斷의 政治情勢下에서 全韓半島를 共產化하기 위한 基本命題로서 社會主義經濟의 土臺를 強化하고 北韓은 革命基地로 삼아 工業化에 의한 經濟力 및 軍事力を 強化함으로써 政治・軍事・經濟面에서 北韓의 絶對的 優位를 確保하여 赤化統一을 위한 革命力量을 強化하려는데 이는 것이다. 그러면 40 년간에 걸친 北韓의

11) 李源俊, 前揭書, pp. 91-92.

12) 上揭書, p. 92.

主要經濟政策을 살펴보기로 한다.

(1) 軍需産業中心의 重工業優先政策

北韓의 經濟政策에 있어서 가장 重要한 經濟政策은 軍需産業中心의 重工業優先政策을 들수 있다. 이러한 重工業優先政策을 내세우고 있는 것은 農業과 輕工業을 反轉시켜 住民生活을 向上시키는 것 보다는 住民의 食生活 및 消費生活을 抑制하고 重工業을 優先적으로 發展시킴으로써 軍事力 強化를 위한 軍需産業中心의 經濟力을 確保하여 韓半島의 共產化를 위한 革命力量을 昂揚시킨다는 政治的 目的意識을 內包하고 있는 것이다.

즉 重工業은 擴大再生産으로서 軍需産業 中心의 工業化를 意味함으로 이는 곧 軍備擴充政策인 것이다. 따라서 軍備擴充政策은 軍事力強化를 意味하게 된다.

北韓은 1967년 以前 每年 豫算에서 軍事費가 不過 3~8 퍼센트이었으나, 實際로 軍事力을 急速度로 強化하여 온 것은 重工業發展으로 潛在的 軍需産業이 큰 比重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北韓의 工業構造에서 重工業의 比率이 繼續적으로 높았다는 것은 人民經濟 7個年計劃과 6個年計劃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7個年計劃에서 그 實績을 보면 重工業이 80 퍼센트線을 占하였고¹³⁾, 6個年計劃에서는 構成比가 83 퍼센트로 더 높게 策定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重工業에 얼마나 置重하였는가를 立證하고 있는 것이다.

(2) 軍事力과 經濟建設의 並進策

北韓 社會主義 憲法 第31條에는 「……經濟建設을 다그치고 人民生活을 끊임 없이 높이며 國防力을 強化할 수 있도록 人民經濟發展計劃을 作成하며 實行한다.……」라고 明示하여 經濟建設과 軍事力強化의 並進政

¹³⁾ 上揭書, p. 93.

策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¹⁴⁾

이러한 軍事力強化의 經濟政策은 1962년 10월 쿠바 危機에 있어서 蘇聯의 讓步로 收拾된데 刺戟되어 北韓의 保安를 蘇聯에 依存하는 것은 危險하다고 느끼고 同年 12월 勞動黨 中央委員會全員會議에서 ‘國防에서의 自衛’를 提唱하여 經濟發展을 日程하게 遲延시키더라도 軍事力を 強化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決意함으로써 自主的 軍事工業基地建設에 拍車を 加하였던 것이다.

또한 軍事力 強化라는 政策은 北韓이 1962년부터 내세운 四大軍事路線(全人民의 武裝化, 全國土의 要塞化, 軍의 現代化 및 軍의 幹部化)에서도 잘 表現되고 있다.¹⁵⁾

더구나 1967년부터 北韓의 軍事費는 從前의 10 퍼센트 未滿에서 갑자기 30 퍼센트로 策定함으로써 軍事力強化政策을 反映하였던 것에서도 이는 잘 나타나고 있다.

(3) 社會主義建設의 生産競爭運動

北韓의 社會主義建設의 生産競爭運動은 ‘千里馬運動’을 비롯하여 ‘靑山里精神’(靑山里方法)과 ‘大安事業體系’ 등이 그 代表的인 예이다. 社會主義建設의 生産競爭運動은 1930년대 蘇聯의 「스타하노브」運動에서 비롯된 勞動力搾取運動으로서 中國에서는 1950년대 ‘大躍進運動’을 展開하였고 北韓에서는 1959년 初 소위 ‘千里馬運動’을 이어 1960년도에는 靑山里精神과 1961년도에는 大安事業體系 등의 農業 및 工業分野에 이르기까지도 北韓 全地域에서 展開하였던 것이다.

社會主義經濟制度 하에서 이처럼 生産競爭運動을 벌이지 않으면 안되는 原因은 資本主義的營利活動이 排除되고 있기 때문에 勞動者들의 物質的 關心이 無視되고 있어 自然 生産活動에 參與하려는 勞動意慾의 減退

14) <北韓> 北韓研究所, 1988.1월號, p.93.

15) 李源俊, 前揭書, p.93.

와 生産能率의 低下를 모면할 수 없다는데 있는 것이다. 따라서 一部 物質的 關心을 便乘操作하여 能率給制 등을 實施하면서 한편으로는 共產主義思想과 理念에 呼訴하는 生産競爭運動을 展開하여 勞動生産性을 높이고 經濟發展을 促進시키려 하고 있다.¹⁶⁾

3. 北韓의 經濟計劃過程과 實相

오늘날 北韓의 統制經濟가 構築된 것은 一朝一夕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40 餘년간에 걸친 高度의 中央集權化와 生産手段의 社會化 및 經濟의 철저한 計劃化·統制化 등의 經濟的 獨裁下에 政策的 目標을 達成하기 위하여 꾸준히 經濟計劃을 實施함으로써 統制經濟體制를 構築한 것이다. 더구나 過去 40 년간 北韓의 經濟는 政治的 目標을 達成시키려 하는 道具로 삼았기 때문에 經濟計劃도 이에 따라 變遷하여 왔다. 40 년간의 經濟計劃은 體制轉換에 따라 이를 8 期로 區分할 수 있다. <표 2 참조>

<표 2> 北韓의 經濟計劃과 變遷過程

區分	時 期	年度	期間	目 的	手 段	主要內容	成 果
1 期	經濟體制整備期	1945 1946	2 年	民衆支持呼應	過渡的	土地改革 勞動法令 產業國有化	社會主義政權 奪取政策
2 期	經濟計劃 試鍊期	47 48	2 年	南侵準備	共產體制改編	農·工·商의 國有化試圖	社會主義移行
	動亂期	49 53	2 年 3 年	經濟動員 赤化統一	戰爭遂行	總 動 員	戰時經濟
3 期	戰後復舊期	54 56	3 年	戰後復舊 統制經濟體制	思想教育 強制節約中央 集權管理	資 原 勞動力 資 本 破壞施設復舊	社會主義化改進
4 期	人民經濟 5 個年計劃	57 61	5 年	戰後復舊補完 獨裁經濟計劃 育成	強制勞動動員 思想教育強化 消費抑制	農業의 集團化 重工業優先 赤 化革命期地完成	社會主義建設
						千里馬運動, 青	

16) 上掲書, pp. 94—96.

5 期	人民經濟第 1 次 7 個年計劃	61 67	7 年	社會主義의 外的 形態準備 增產運動展開	戰爭意識高潮 強制勞動의 集團動員 強制貯蓄	山里敎示, 重工業優先, 全國土 要塞化, 輕工業과 農業의 併行 發展	社會主義深化
	3 個年延長	68 70	3 年	(7 個年計劃의 失敗) 補完	—	—	〃
6 期	人民經濟 6 個年計劃	71 76 77	6 年 1 年 (완충기)	軍事力 強化	生産競爭 運動強化	技術革命 重工業優先 發展 增產強化	社會主義의 深化
7 期	人民經濟 第 2 次 7 個年計劃	78 84 86	7 年 2 年	社會主義의 自力更生(손수 사회주의 만들기) (조정기간)	思想技術文化 등 3 大革命	經濟의 主體化 現代化 科學化	社會主義 土台強化
8 期	人民經濟 第 3 次 7 個年計劃	87 93		輸出增大 住民生活向上	技術革命強化	物質的 技術的 土台 마련 10 大전망 목표 실현(추가)	社會主義 土台強化

자료: ① 6 期 6 個年計劃까지는 李源俊 「國防經濟力과 共產圈經濟要論」 1977, pp. 98—99 참조

② 7 期—8 期 第 2~3 次 7 個年計劃은 <北韓> 北韓研究所 1988. 6 월號(pp. 77—85) 및 10 월號(pp. 198—199) 참조

1945 年 光復을 맞으면서 38 度線을 境界로 南과 北이 갈리자 北에는 蘇聯軍이 진주하여 全日成을 中心으로 하는 共產主義集團으로 하여금 共產主義에 대한 民衆의 支持와 呼應을 받게 하는 過度的措置로서 土地改革과 產業의 國有化, 勞動法令 등을 制定·實施하여 社會主義政權탈취를 위한 經濟體制整備期(1 期)를 맞게 되었다.

이어 1947 年부터 1948 年까지를 經濟計劃試鍊期로 2 년간의 經濟計劃으로서 社會主義移行을 圖謀하고자 農業의 集團化와 商·工業의 國有化를 實現하면서 한편으로는 南侵準備를 하였고 1949 年부터 1950 年까지는 南侵準備가 完了되면서 드디어 1950 年 6.25 南侵을 감행하였다. 이에 따라 赤化統一을 위한 戰時經濟下의 總經濟動員이 1953 年까지 強化되었다. 이 時期를 動亂期로서 第 2 期の 後半의 經濟計劃期를 맞게 되었다.

그러나 6.25 南侵은 UN軍의 支援으로 失敗하자 北韓은 어쩔수 없이 파괴된 도시와 경제건설을 위하여 第 3 期の 戰後復舊期를 설정 1954 年

부터 1956년까지 3個년간의 經濟計劃을 樹立하였다.¹⁷⁾ 이 計劃을 推進하고자 모든 資原과 勞動力, 資本 등을 總動員하는 한편 思想教育과 強制節約 및 中央集權管理를 強化하면서 統制經濟體制를 構築하였다.

그러나 戰後復舊 3個年計劃은 6.25 動亂中 8천 700餘개소의 工場과 企業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戰前의 水準을 회복하는 目標아래 經濟計劃을 推進하였다. 1956년도를 目標年度로한 總生産額이 1953년 對北 2.6倍로 책정되었는데 그 中에서 工業部門이 176퍼센트, 建設部門이 174퍼센트의 증가를, 그리고 生産물은 原價에서 20~30퍼센트, 건설조립가격으로는 11퍼센트 内外의 절감을 試圖하였다. 그 때의 經濟政策은 重工業의 優先的 發展을 保障하면서 輕工業과 農業을 同時에 發展시키는 것이었다. 이를 具體的으로 살펴보면 석탄, 금속, 전력, 기계, 화학, 건설의 諸部門을 우선시키고, 機械製造에는 工作機械와 鑛山, 紡績, 비료, 農業의 機械化에 중점을 두었으니 이는 “社會主義經濟의 法則性和 北韓經濟發展의 特殊한 條件에 合致하는 科學的·創造的·革命的인 것이라”라고 선전된 것이다.¹⁸⁾

그 實績은 ① 器資材의 不足과 ② 勞動力의 不足, 技術의 不足, ④ 外資不足 등으로 원할치 못하여 그 대응책으로 ① 國內資原과 資材의 動員과 合理的인 利用, ② 勞動力의 量的 確保와 機械化의 促進, ③ 先進社會主義諸國과의 協力과 技術者의 養成 및 技術水準의 向上, ④ 節約制度의 強化, ⑤ 外資획득과 절감 등을 내세웠으나 별 效果를 거두지 못하면서 결국은 蘇聯을 비롯한 동구권의 사회주의제국으로부터 약 5억 5천 8백 85만달리에 달하는(국가예산수입의 40퍼센트) 경제원조에 의지하였다.¹⁹⁾

17) 上掲書, p. 98.

18) Building of an Independent National Economy in Our Country Foreign Trade of the D.P.R.K. 1970, p. 53.

19) 아시아 문제연구소 편, 《북한자료 2집》 참조

그리하여 戰後復舊期에서 나타난 成果는 ① 個人 農經營의 協同化와 ② 私營 商工業의 集團化 등의 社會主義的 改造가 현저히 進行되었고, 1956 年末 工業總生産額은 1953 年 對比 2.8 倍로, 그리고 6.25 動亂前인 1949 年の 1.8 倍의 復舊建設이 되었다는 것이다. 한편 同期間中 工業總生産額의 年平均成長率은 4.2 퍼센트로 비교적 낮은 편이었다고 한다. 第3 期の 戰後復舊期(1954~1956)에 이어 北韓은 1957 년부터 1961 년까지를 人民經濟 5 個年計劃을 내세웠으니 이 때가 第4 期로 볼 수 있다. 이 5 個年計劃期에는 農業의 集團化를 完了하는 것과, 軍需産業中心 즉 戰爭物資生産을 위한 重工業優先的 發展을 내세우면서 思想教育을 強化라고 消費를 抑制하며, 勞動力의 強制動員을 推進하였다.

當時의 主要目標은 工業總生産額은 1956 年 對比 2.6 배(1961 年 목표년도 기준), 生産手段生産部門 2.9 倍, 소비재生産부분 2.2 배, 年平均 工業成長率 21.5 퍼센트를 내세웠다. 그 實績은 1960 년도에 목표를 초과달성하여 오히려 1 년을 단축한다고 발표되었다. 즉 工業總生産額은 1957 年 對比 3.6 倍, 消費財生産部門은 3.3 倍, 電力工業은 1.8 倍, 機械製作工業 工業은 4.7 倍, 방적공업 3.5 倍, 食糧 기호품공업 4.3 倍, 文化用品 및 家庭用品生産은 6.8 倍가 성장하였고 工業生産 年平均成長率은 36.6 퍼센트에 달하였다는 것이다.²⁰⁾ 그리하여 北韓은 6.25 動亂으로 파괴된 戰後復舊건설과 社會主義的 改造가 實現되었는가 하면은 일단 전후의 후유증은 가신것 같이 經濟安定을 맞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數億달러의 對外經濟援助가 뒷 받침되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한다면 實質成長幅은 상당히 감소되는 것이라는데 留意해야 할 것이다. 1960 년도에 目標을 초과달성하였다는 발표와 더불어 1961 년부터 1967 년까지를 第1 次 7 個年計劃期로 발표하였다. 이 時期가 第5 期の 經濟計劃期로 區分할 수 있다.

20) 高瀨淨著, 이남현 옮김, 《북한경제입문》 청년사, 1988, p.249.

第1次 7個年計劃期에는 社會主義 農業國부터 社會主義 工業國으로의 移行을 겨냥하였다. 同 計劃期の 經濟政策은 ① 重工業優先發展과 ② 輕工業과 農業同時發展이라는 점에서는 前期計劃과 別 차이가 없으나 특별히 새로운 경제관리 체제로서 農材의 增産運動으로 ‘靑山里精神’(또는 靑山里方法——전술함——)을 工業에서는 ‘大安의 事業體系’ 등의 生産競爭運動이 展開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第1次 7個年計劃은 5個年計劃을 1년 앞당겨 目標達成을 한 것과는 달리 失敗를 모면할 길이 없어 도중에는 1970년까지 3년을 延長하므로써 實質的으로는 10個年計劃(1961~1970)으로 개편된 셈이다. 그리하여 새로이 ‘軍事와 經濟建設’의 並行이라는 경제정책이 채택되어 政治와 軍事優位型的의 경제건설체제로 移行되었다. 이에 대한 北韓당국의 변명은 국제환경의 악화와 국방비부담의 증대로 인한 필연적인 정책이라는 것이다. 즉 國際的環境의 악화는 1962년 10월 古巴의 위기에 있어서 蘇聯의 讓步에 자극되었고 中·蘇의 대립과 베트남전쟁, 中國의 文化大革命, 韓日協約의 締結 등 北韓에 不利한 환경이 展開되었다. 그리고 보다 앞서 北韓은 1962년 ① 全人民의 武裝化, ② 全國의 要塞化, ③ 全軍의 現代化, ④ 全軍의 幹部化라는 四大軍事路線²¹⁾을 強調한 바 있어 7個年計劃을 3個年延長하면서 ‘軍事와 經濟建設의 並進策’을 내세웠던 것이다.

이러한 第1次 7個年計劃의 計劃目標과 그 實績을 보면 다음 表와 같다. 위 表에 나타난 바 같이 工業總生産 1967년까지 目標 3.2倍에 實績은 1970년에 3.3倍로 초과되었으나 이는 3년연장하여 1970년도까지 달성된 實績이기 때문에 實際는 未達되었음을 알 수 있다. 年平均成長率 目標 18퍼센트에 實績은 12.8퍼센트(연장 계획으로 實際는 12.4퍼센트에 머문다)로 무려 5.2퍼센트나 未達되었고, 生産財生産은 目標 3.2倍에

21) 李源俊, 前掲書. p. 93.

實績은 3.7 배로 초과달성하였으나 消費財生産은 3.1 배 목표에 實績은 2.8 배로 未達되어 全體的인 實績은 90 퍼센트에 머물렀다. <표 3 참조>

<표 3> 北韓 6 個年計劃의 目標와 實績

	공업생산액	생산수단	소비재	성장속도
제 1 차 5 개년 계획	3.3(배)	3.7(배)	2.8(배)	12.8(%)
6 개년 계획목표	2.2	2.3	2.0	14.0
6 개년 계획 실적	2.5	2.6	2.4	16.3

출처: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 6 기 제 1 차 회의보고에 의함

<표 4> 北韓 6 個年計劃의 品目別 目標와 實績

품 목	단 위	목 표	실 적
전 력	억KWH	280~300	280
석 탄	만t	5,000~5,300	5,000
철 강	"	380~400	400
공 작 기 계	대	27,000	30,000
트 랙 터	"	21,000	30,000
화 학 비 료	만t	280~300	300
시 멘 트	"	750~800	800
곡 물	"	800~850	850
육 류	"	40~50	55
수 산 물	"	160~180	100

출처: 위표와 同一

그러나 軍需産業中心인 生産財生産은 초과달성한 反面, 住民의 生活필수품인 消費財生産은 未達된 점으로 미루어 역시 軍事力強化를 위한 軍事와 經濟建設政策이 強力하게 反映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3년간을 延長한 第1次 7 個年計劃에 이어 北韓은 第6期の計劃을 縮少하여 6 個年計劃으로 樹立하였다. 이러한 6 個年計劃은 1970 년 11 월에 열린 第5次 勞動黨大會에서 채택되었다²²⁾.

그런데 過去 數次에 걸친 北韓의 經濟計劃은 重工業優先政策으로 이分野에 대한 集中投資 때문에 生産財生産의 增加로 軍數工業基地를 強化하는데 기여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輕工業 및 農業分野에 대한 中央財政

22) 北韓, 勞動黨, 第5次黨大會報告, 1970 년 11 월.

調達の減少로 輕工業發展을 壓迫하고, 農業의 沈滯等으로 産業間の 不均衡을 招來하였다.

이에 따라서 北韓은 1970 년대에 들어서서 지난 5 期에 걸쳐 이룩해 놓은 産業의 内部的 脆弱性を 補完하고, 技術革命의 次元을 提高하는데 역점을 둔 1971 년부터 76 년까지의 6 個年計劃을 서둘러 樹立한 것이다.

이 計劃은 産業立地上的 不利點을 克服하면서 戰略産業을 調整·強化하고 東西의 強大的 經濟圈과 地域單位 經濟體制를 構築하려는데 焦點을 두어 80 년대의 自立經濟達成과 軍事力 強化 및 南北韓의 經濟發展競爭에 對應하려는 企圖가 內包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6 個年計劃의 主要經濟政策을 보면 ① 重工業 優先的 發展, ② 輕工業과 農業의 同時的 發展, ③ 後方 戰略基地 構築, ④ 技術 勞動力의 確保, ⑤ 地域간의 産業의 均衡과 効率化 등이다. 이 計劃에 따라 北韓은 工業面에서 內部構造를 改善하고 發展시키면서 技術革命을 보다 높은 段階로 前進시킨다는 基本課題下에 重化學工業을 近代化하고 工業原料의 自給度도 60~70 퍼센트로 높여 自立的 工業構造를 더욱 強化하는 한편 農業에서는 勞働의 集約化를 基本問題로 삼고, 同時に 農業의 機械化와 化學化에 重點을 두었다.²³⁾

이러한 北韓의 6 個年計劃은 1971 년부터 實施하다가 1974 년에 이를 1975 년 10 월 10 일 勞動黨創建 30 주년까지 完遂하도록 計劃을 修正하고, 1 년을 앞당기기 위하여 速度戰運動으로 生産競爭運動을 展開하였으나 그 實績은 아직도 發表되지 않고 있는 實情이다. 이렇게 北韓이 早期達成을 위해 計劃을 修正한 것은 南北對話 過程에서 韓國보다 뒤진 經濟現象을 만회해 보려는 것이었으며, 이에 따라 勞働의 強度를 加一層 強化하고 나아가 對外經濟交流를 擴大하려는 企圖가 前提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日本을 비롯하여 西歐諸國들에게 많은 外債를 상환하지 못하

23) 李源俊, 前掲書, p. 99.

여 그 信用度가 떨어지고 있으며, 速度戰運動으로 住民들을 生産競爭運動으로 내몰고 있으나 個人的 利潤을 무시하고 있는 社會主義經濟體制下에서는 勞動意慾이 增大될 수 없다는 原理등을 勘案할 때 北韓의 6個年計劃도 큰 成果를 期待할 수 없는 實情이라고 하겠다.

6個年計劃의 目標를 보면, 工業生産 年平均成長率 14 퍼센트, 工業總生産은 1970 년 對比 2.2 倍, 生産財生産 2.3 倍, 消費財生産 2.0 倍, 鋼鐵 380~400 萬톤, 穀物 750 萬톤(精穀: 480 萬톤), 水産物 160~180 萬톤, 石炭 5 천 만톤~5 천 300 萬톤 生産을 目標로 내세웠다.

이러한 計劃에 따른 實績을 보면, 目標年度인 1976 년도의 工業總生産은 1970 년 對比 2.5 倍(目標 2.2 倍)로 초과달성하였다. 그 중 生産財生産은 2.6 倍(目標 2.3 倍), 消費財生産은 2.4 倍(目標 2.0 倍), 年平均成長率 16.3 퍼센트(目標 14 퍼센트)로 全體的으로 目標를 上廻하는 實績을 보였다. 이를 各部門別로 보면 '에너지'生産에서 石炭이 5 천萬톤, 電力이 280 億KWH, 시멘트 800 萬톤 工作機械部門에서는 5 千 5 百 50 台 불링, 3 千 마력 불도저, 10 m²大型 굴착기, 5 萬KVA상당의 發電機 20 萬KVA 상당의 大型 變壓器 등 大動力설비, 大型선박, 60 톤급 화물차, 2천500마력 중속엔진, 3 千 마력 고속엔진 등, 그리고 수많은 근대적인 工場, 企業 所설비를 종합적으로 生産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고 1977 년 12 월 最高人民會議 第6期 1次회의에서 보고 되었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30 年間に 걸쳐 第6期の 經濟計劃機關中 6期の 6個年計劃은 그들 보고대로 目標達成을 한 時期는 이때뿐이었다.

이어 시작된 第7期の 第2次 7個年計劃을 위하여 1977 년을 완충기로 하여 1978 년부터 1984 년까지로 計劃을 樹立하였다²⁴⁾.

이 7個年計劃은 '人民經濟의 主體화와 現代化, 科學化를 促進하고 社會主義經濟의 土台를 더욱 強化하며, 人民生活을 더욱 上昇시킨다'는 것

24) 北韓, 最高人民會議 第6期 第1次會議, 1977 년 12 월

이 勞動黨의 提案說明이었다. 한편 이 計劃을 推進하는데는 ‘思想·技術·文化의 三大 革命’을 철저히 修行할 것을 強調하면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기술, 우리의 資源’으로 第2次 7個年計劃을 修行하지 않으면 안되며, 소위 ‘손수 만든 社會主義’를 提唱하였다.

第2次 7個年計劃期の 經濟成長目標를 보면 工業總生産額이 1976년 對比 2.2倍, 年平均成長率은 12.1퍼센트 生産財生産은 2.2倍, 消費財生産은 2.1倍로 세웠으나 年平均成長率이 12.2퍼센트로 0.1퍼센트를 초과달성한 것 외에는 겨우 目標達成을 한 것으로 발표되었다.²⁵⁾

한편 同計劃期の 細部目標와 實績을 보면은 電力이 目標 560~600억 kwh에서 實績은 500억kwh로 83퍼센트에 石炭 7천~8천萬톤 目標에 實績은 7천500萬톤으로 93퍼센트 化學비료 500萬톤 目標에 實績은 460萬톤 92퍼센트 穀物 1천萬톤 目標에 實績은 944萬톤으로 94퍼센트로서 시멘트와 직물, 水産物은 除外한 生産目標는 大體的으로 90퍼센트 水準에 머물렀음을 알 수 있다. <표 5 참조>

<표 5> 北韓 第2次 7個年計劃의 實績(78~84)

종	목	계획목표	실적(77년대비)	6개년실적(75년)
전	력	560~600억kwh	178%(≒500만t)	280
석	탄	7,000~8,000만t	150%(≒7500만t)	5,000
철	강	740~800만t	185%(≒740만t)	400
비	철금속	100만t	—	—
시	멘트	1,200~1,300만t	178%(≒1424만t)	800
화	학비료	500만t	156%(≒460만t)	300
직	물	8억m	145%(≒8.7억m)	6억m이상
수	산물	350만t	220%≒352만t	160
공	물	1,000만t	118%≒944만t	800만t 이상
간	척지	10만ha		

자료: 북한중앙통제국 발표

高瀬淨(著), 이남천 옮김 《북한경제입문》청년사, 1988, p.271. 再引用

이러한 現象은 1980년 10월 勞動黨 第6次 大會에서 내세운 “思想·技術·文化의 ‘3大革命’은……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總路線이며……근본방침이다”라고 3大革命을 再確認하면서 第2次 7個年計劃을 앞당

25) 日本貿易振興會, 北朝鮮の經濟と現象, 1980—88.

겨 달성하고 보다 높은 목표를 향해 계속 강력히 전진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1980 년을 向해 새롭게 “新 10 大經濟展望目標”를 提示하였다. <표 6 참조>

여하튼 北韓은 第7期の 第2次 7個年 計劃도 一部시멘트생산과 직물, 수산물 생산을 除外하고는 全般的으로 目標에 未達된 狀態에서 目標年度를 맞게 되었고 이어 즉시 第3次 7個年計劃을 樹立하지 못한채 1986 년까지 2年間을 조정기간을 두어 이를 補完한 뒤 1987 년부터 1993 년까지의 第8期の 第3次 7個年計劃을 樹立하기에 이르렀다.

<표 6> 北韓의 10大展望目標와 第3次 7個年計劃

구	분	10 대전망목표(89년)	제 3 차 7 개년계획(87~93년)
전	력	1 천억킬로와트	1 천억킬로와트
석	탄	1 만 2 천톤	1 억 2 천만톤
철	강	1 천 5 백만톤	1 천만톤
비	철	1 백 50 만톤	1 백 70 만톤
시	멘	2 천만톤	2 천 2 백만톤
화	학	7 백만톤	7 백 20 만톤
직	물	15 억미터	15 억미터
수	산	5 백만톤	1 천 1 백만톤
곡	물	1 천 5 백만톤	1 천 5 백만톤
간	척	30 만헥타르	30 만헥타르

자료 : <北韓> 北韓研究所, 1988 년 10 월號, pp. 198~199 에서 종합작성

1988 년 6 월 日本의 日朝貿易에서 발표한 第3次 7個年計劃의 目標를 보면, 곡물생산량 1천 500 萬톤, 수산물 1천 100 萬톤, 電力 1 천 kwh, 철강 1 천 萬톤, 시멘트 2천 200 萬톤 등으로 나타났고, 日本貿易振興會, 「北朝鮮の 經濟と 貿易の 現狀」에서 발표한 工業總生産은 1.9 倍로 第2次 7個年計劃期の 2.2 倍에 比하여 0.3 倍나 낮게 計劃되어 있는가 하면은 年平均成長率도 10.0 퍼센트로서 前期에 比하여 2.1 퍼센트를 낮추어 計劃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生産財生産도 0.3 倍가 낮은 1.9 倍 消費財生産도 0.3 倍가 낮은 1.8 倍로 모두 낮게 下向計劃되었다.

그리고 이번 第3次 7個年計劃은 지난해 4월 21일²⁶⁾ 발표할 때에 이미 '輕工業生産擴大와 輸出增大'에 역점을 두었다는데서도 北韓이 그 間 軍需産業 中心의 重工業과 폐쇄적인 自力更生政策이 결국 經濟難만을 招來하였기 때문에 이를 전면적으로 修正 발표하였던 것이다. 이 期間中에 채택된 對外貿易增加率은 220 퍼센트나 된다.

北韓의 政務院총리 李根模가 밝힌 이와 같은 第3次 7個年計劃은 北韓이 40年間에 걸쳐 固守해오던 軍需産業中心의 重工業優先政策과 軍事力強化를 위한 經濟建設, 폐쇄적인 自力更生政策으로 北韓住民들의 억제된 消費生活속에서 나타나는 不滿을 해소하지 않을 수 없고 40억달러에 달하는 外債의 壓迫을 벗어나지 않으면 안된다는 經濟的 現實을 打開하려는데 力點을 두었다고 볼 수 있다.

北韓이 지난 1980년 第6次 黨大會에서 채택된 '80年代의 社會主義建設의 10大展望目標'에서는 1980년대까지 工業總生産增加率을 年平均 13.4 퍼센트로 높게 설정하였고, 철강생산을 비롯하여 시멘트, 석탄, 전력 등의 기간산업분야에 대하여 劃期的인 成長目標을 提示한 바 있다.

그러나 北韓은 統制經濟下에서 철저한 計劃經濟는 實施하는 體制의 更直性和 投資財源의 不足, 技術水準의 落後 등 經濟構造的인 취약점으로 因해 1984년도 第2次 7個年計劃이 끝날 때에 이미 蹉跌을 갖어 왔기 때문에 이같은 經濟的인 難關을 打開하고자 1984년도 부터 基幹産業의 整備와 經濟構造的인 改善등 內部改革과 外國과의 合作投資를 誘導하고자 合營法制定 등을 서둘러 對外開放政策을 試圖했으나 오히려 每年 貿易赤字와 住民生活의 壓迫과 不滿, 外債의 督促 등으로 經濟的인 難局에 부딪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어려운 狀況에서 北韓은 1985년도와 1986년도의 2년동안은 새로운 次期 經濟計劃을 樹立하지 못하고 經濟政策設定에 苦心하다가

26) 北韓, 最高人民會議, 第8期 2次會議

1985년부터 1986년까지를 第2次 7個年計劃期에 미달된 經濟計劃目標을 補完하는 조정기간을 설정하고 새로운 經濟計劃推進에 必要한 資本과 技術導入을 위한 對外開放擴大策 등을 模索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基幹産業整備를 위한 技術革新運動을 강화하는 한편, 연료 및 동력분야의 확대와 輸出增大를 위한 石炭·非鐵金屬 등이 採取工業과 輕工業分野에 比重을 높여 왔던 것이다.

이러한 住民의 消費生活와 관련되는 輕工業에 比重을 두는 것은 金正日 後繼體制 構築을 위하여 내세운 “人民生活向上策”과도 관련을 갖는다는데 留意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40년간에 걸친 軍需産業中心의 重工業優先政策과 폐쇄적인 自力更生政策 그리고 軍事力強化를 위한 經濟建設의 骨格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改革과 開放을 모색하려는 兩面性의 經濟政策을 큰 期待를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問題를 놓고 北韓의 最高會議에서는 상당한 異見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더구나 高度成長을 한 韓國과의 政治 軍事力 競爭과 관련하여 軍需産業中心의 重工業 優先政策을 固守하려는 政治·軍事의 重視派와 住民生活과 外債 등의 經濟現實을 直視한 經濟重視派間의 갈등과 이견의 對立에서 이번 第3次 7個年計劃의 經濟政策과 目標設定에는 經濟現實主義路線이 重視되었음을 意味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第3次 7個年計劃에서는 當面한 北韓의 심각한 經濟難을 우선 打開하기 위해서는 全體的인 成長目標의 下向調整이 不可避했던 것이라고 評價할 수 있다. 즉 10大展望目標에서의 13.4퍼센트의 年平均 工業總生産增加率을 第3次 7個年計劃에서는 10퍼센트로 무려 3.4퍼센트 下向調整하였는가 하면은 第2次 7個年計劃期の 12.2퍼센트에서도 2.2퍼센트나 낮추어 目標를 설정하였고, 生産財生産에서도 2.2倍(2次計劃)에서 1.9倍로, 消費財生産도 2.1倍(2次計劃)에서 1.8倍로 下向調整된 것에서도 이를 立證한다고 하겠다.

4. 北韓의 經濟展望

‘輕工業生産擴大와 輸出增大’로 人民生活의 향상과 對外開放政策을 追求하는 第3次 7個年計劃의 成長目標을 全般的으로 下向調整한 北韓의 經濟展望은 그다지 好轉되리라는 期待를 하기가 어렵다.

40餘年間に 걸쳐 固質化된 軍事力強化와 重工業優先政策으로 大部分의 工業生産施設이 軍需産業을 위한 生産財生産中心이라는 點에서 短期間內에 住民消費生活을 위한 消費財生産으로의 轉換이 不可能하다는 점을 指摘할 수 있다.

이러한 실증은 첫째, 過去 40年間の(1946~1986)의 工業生産部門에서 重工業分野에 屬하는 機械工業은 1천 690倍로, 鐵鋼生産은 1천 346倍로 増生된데 比하여 輕工業分野인 織物은 312倍, 製靴生産 326倍, 합성수지 327倍 시멘트 118倍, 石炭 60倍 정도²⁷⁾로 重工業이 80퍼센트線을 上廻하고 있는가 하면은 輕工業分野는 20퍼센트線에도 未達되었다는 점을 감안 할 때에 短期間內에 輕工業施設을 増設할 수 없기 때문에 消費財生産을 갑자기 擴大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둘째, 뿐만 아니라 工業生産部門에서도 生産財生産을 1.9倍로 설정한데 比해 역시 消費財生産目標은 그 보다 낮게 1.8倍로 설정한데서도 立證할 수 있는 것이다.

세째로는 財政支出面에서도 1988년도 歲出 318억 5천만원(北韓貨)中 12.2퍼센트가 國防費로 책정되어 있음을 볼 때에 1987년도 13.2퍼센트에서 1.0퍼센트를 下向調整한데서도 이미 強化된 軍事力을 계속 維持하려는 意圖가 持續되고 있는데에서도 重工業의 縮少는 不可能하다는 判斷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1988년도 예산 318억 5천만원의 12.2퍼센트는 38억 8천 5백만원인가 하면 1987년도 303억 4천만원의 13.2퍼센

27) 朝鮮畫報, 1988년 8월號.

트²⁸⁾는 40 억원이므로 그 差額은 겨우 1 억 2 천만원 삭감한데 不過하다는 데서도 既存 軍事力을 減縮하리라는 期待를 할 수 없고, 또 北韓의 豫算 支出方式의 國防費外에 人民經濟費에서 兵器生産費와 軍官(將校) 住宅費가 支出되는가 하면, 社會文化費에서 軍事科學研究費와 軍事教育費가 支出되며, 國家管理維持費에서 約 400 萬의 民兵維持費 등이 은폐 支出²⁹⁾ 되기 때문에 實質的인 軍事費는 GNP와 北韓豫算의 約 30 퍼센트 水準에 이를 것으로 보기 때문에 輕工業의 發展은 期待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判斷된다.

다음으로는 對外開放政策으로 輸出을 增大하겠다는 것은 蘇聯이나 中國・東歐共產圈과의 交易 擴大가 어렵고 西歐諸國으로부터의 外債의 壓力을 견디기가 어렵다는 것과 共產圈의 技術水準이 西方國家에 比하여 落後되어 있다는 점에서 開放政策과 輸出擴大로 西方國家와의 交流를 試圖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더구나 北韓은 毎年 貿易赤字가 증가되어 1987 년도에는 수출 16 억 6 천 5 백달러에 收入은 23 억 9 천 5 백달러 무려 7 천 3 백만달러의 貿易赤字를 보여 1986 년도 5 천 5 백 7 십만달러에 比해 31 퍼센트 증가된 셈이다.³⁰⁾

한편 蘇聯의 貿易依存度에서도 1984 년도 수출 33 퍼센트에서 1985 년도에 37.2 퍼센트로 4.2 퍼센트가 증가 한데 比해 수입은 30.1 퍼센트에서 47.2 퍼센트로 무려 17.1 퍼센트나 증가한 점에서 貿易收支面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³¹⁾

한편 東歐圈과의 交易에 있어서도 헝가리와는 1983 년도 貿易量이 1 천 1 백 784 달러에서 1985 년도에는 1 천만 94 달러로 減少現象을 보였고, 루

28) 日本, 貿易振興會, 北朝鮮の經濟と貿易の現状, 1980~88. 再引用.

29) 李源俊, 《國防經濟力과 共產圈經濟要論》(서울: 大光文化社, 1977), p. 104.

30) 國土統一院, 資料

31) <內外通信> 1987 년 4 월 3 일字.

마니아와의 貿易에서도 1983 년도 3 천 6 백만 1 천달러 1985 년도에는 3 천 1 백만 1 천달러로 減少되었다.³²⁾

그리고 中國과의 貿易量에서도 1986 년도 5 억 3 천 3 백만 4 천 4 백달러 에서 1987 년도에는 5 억 2 천만 7 천 9 백달러로 減少되어 對共產圈 國家와의 貿易이 不振해지는 現象을 打開하고자 對西方을 겨냥한 輸出擴大와 開放政策으로 對外經濟協力을 強化하려는데 있는 것으로 풀이 된다.

이러한 現象은 蘇聯의 開放政策과 中國의 經濟開放化에 영향을 받아 이미 '合營法'을 만들어 朝日貿易商事와 樂園百貨店의 合作投資를 誘導했고, 프랑스의 콩페농베르나르社와는 半角島호텔의 合作投資를, 그리고 蘇聯과는 大陸崩探查研究所의 合作投資를³⁴⁾, 그리고 西獨의 최대 機械메이커인 지멘스社와 1985 년初 平壤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부산한 對外 貿易과 經濟協力을 서두르고 있기는 하나 中·蘇 등의 共產國家를 비롯한 西方國家 등 15 個國으로부터 總 40 억달러가 넘는 外債가 1987 년도에는 52 억달러로³⁵⁾ 무려 12 억달러로 前年對比 23 퍼센트가 늘어난 점으로 보아 對外貿易擴大는 國際적인 信用度を 잃고 있기 때문에 容易하지 않을 곳이다. <표 7 참조>

<표 7> 北韓의 外債現況 (단위: 백만달러)

구 분			외 채 액
일	본		450(700 억엔)
서	독		200
프	랑	스	180(10.8 억프랑)
스	웨	덴	138(9 억크로나)
오	스	트 리 아	100(13 억실링)
영		국	24
스	위	스	20
네	덜	란 드	19(3,800 만길더)
핀	란	드	16
벨	기	에	5

32) <北韓> 北韓研究所, 1988 년 6 월號, pp.176—178.

33) 日本貿易振興會, 《海外調査部 統計》1988.

34) 國토통일원, 《북한의 경제실태》1986 년 11 월.

35) 國土統一院 發表

멘 서 기	구	마 은 행	크 단 타	4 676 400
서	방	권	계	2,232
중 소			국 련	590 1,240
공	산	권	계	1,830
총			계	4,062

자료: <내외통신> 1987년 8월 28일자.

끝으로 1988년 9월 8일 北韓共產政權 창립 40주년 기념식에서 “重工業위주의 경제정책을 農業開放에 最優先을 두는 構造로 轉換해야 될 것”이라고 金日成이가 연설한 바 있다.³⁷⁾ 그러나 北韓은 地理的인 條件이 大部分 山岳地帶로 되어 있어 農業生活性を 높이기 위한 農業開放政策은 比較的 不利한 與件에 處해 있다. 北韓의 年度別 알곡생산실적을 보면 1974년 700만톤, 1975년에는 750만톤, 1976년에는 800만톤, 1977년에는 850만톤, 1979년에는 700만톤, 1982년에는 950만톤, 1984년에는 1천만톤이 生産된 것으로 발표되었다.³⁷⁾ 이를 액면 그대로 보고 精穀으로 환산하면은 實際는 500만톤 程度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감자나 옥수수를 主食으로 하지 않는 限食糧사정은 매우 어려운지경이다. 그렇기 때문에 配給食糧이 600그램에서 400그램으로 줄게 되었고, 나머지는 터밭에서 채소 등으로 식량을 보충하지 않으면 안되는 實情이다. 이중 ‘터밭’ 사정도 좋지 못하여 1970년대 50坪씩을 分配하던 것을 1980년대 들어와서 30坪으로 줄인 것을 볼 때에 人口增加로 인한 土地需要와 農地事情이 좋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구나 豫算支出部門中 農業部分이 1987년도 결산 8.9퍼센트에서 1988년도 예산은 8퍼센트로 낮춘것을 볼 때에 農業發展은 한낱 農民들의 不滿을 해소하기 위한 口號에 그치지 않을까 한다.³⁸⁾ 따라서 이러한

36) <이코노미스트> 中央日報社, 1988년 11월號, p.52.

37) 日本國際關係共同研究所, 北朝鮮 80.

38) 日本貿易振興會, 北朝鮮の經濟と貿易の展望, 1988.

口號는 北韓의 食糧事情이 어려워진 점을 감안하여 食生活에서까지 節約을 强要하려는 제스츄어가 아닌가 한다. 특히 이를 뒤받침하는 것으로는 北韓의 經濟專門家인 이명식이 金日成이가 9월 8일 연설한 3일後에 이번 기념식취재차 이곳에 온 서방기자단에게 ‘北韓에는 어떠한 食糧不足事態도 없다’고 主張한데서 짐작할 수 있지 않은가 한다. 더구나 每年 人口가 2.2 퍼센트씩 높은 增加率을 보이고 있는 北韓이고 보면 山岳地帶로 둘러쌓인 北녘 땅에서 農業開發로 얼마만큼의 食糧生産을 올릴 것이며, 어려운 食糧事情을 해결할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를 방자하여 農材의 男女老少를 不問하고 協同農場으로 動員하려는 計略이 아닌가 한다.

V. 結 論

以下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韓國과 蘇聯, 中國 및 東歐圈과의 關係가 改善되어 가고 經濟交流가 擴大되어 가는가 하면은 北韓은 40餘年間に 걸친 重工業優先政策과 軍事力 優位の 經濟政策, 그리고 폐쇄적인 自動更生政策 등으로 更直된 統制經濟를 답습하여 결국 經濟的 事情이 어렵게 된데다 15個國으로부터 40億달러의 外債의 壓迫을 받고 있고 설상가상으로 第2次 7個年計劃의 失敗 등으로 經濟的 亂局에 處하고 있는가 하면은 第3次 7個年計劃의 ‘輕工業生産擴大와 輸出增大’의 展望目標의 達成이 不透明한 現狀況에 있다.

이러한 狀況을 打開하는 方案은 무엇보다 軍備增強과 軍事力優先의 經濟政策을 止揚하고 보다 健全한 南北韓간의 經濟交流를 통한 經濟發展을 圖謀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7.7特別宣言과 10.7對北經濟措置로 南北韓간에 가로 막고 있던 장벽이 除去되었으므로 그간 第3國을 통한 間接交易에서 實現可能性이 있는 經濟交流를 통하여 南北韓간의 共同的 利益과 經濟發展을 摸索하므로써 北韓의 輸出增大와 開放政策을 圖謀하게 될 것이다. 특히 韓國의

對共產圈과의 交易擴大로 因하여 北韓의 폐쇄적인 自力更生이 孤立化 招來할 우려마저 있는 점을 勘案하여 볼 때에 南北韓간의 物的인 經濟交流은 결국 北韓의 第3次 7個年計劃을 성공리에 遂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나아가 오늘날의 經濟的인 難局을 回復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南北韓간의 經濟交流을 否定的인 視角에서 보면 이미 지적인 ‘軍事力과 經濟建設의 強化’ ‘戰爭物資生産爲主의 重工業優先政策’ ‘自力更生을 표방하는 閉鎖性, 外債不移行’ 등으로 經濟的 破綻에 直面하고 있는 北韓으로서는 經濟的實態가 노출될까 우려하여 經濟交流을 망설이게 될 우려도 없지 않다.

더구나 南北韓간의 經濟力과 규모의 차이가 심하다는데서 經濟交流을 오히려 더 꺼릴지도 모른다. 특히 1947 년 이후 8 차례에 걸친 經濟計劃의 실패를 은폐하기 위해서도 南北韓간의 經濟的인 차이를 굳이 노출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 實例로 1987 年末 國民總生産規模는 北韓이 南韓의 16.3 퍼센트에 머물러 있고, 1인당 GNP는 33.1 퍼센트, 수출입의 무역규모는 4.6 퍼센트에 머물고 있어 北韓의 經濟實情은 가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기 때문에 南韓과의 經濟交流은 회피하여할 지도 모른다.
(표 8 참조)

〈표 8〉 南北韓의 主要經濟表 現況比較 (1986 년기준)

항목	한국	북한	비고
인구(만명)	4,157	2,019 ¹⁾	
인구증가율(%)	1.24	2.20 ¹⁾	
경제활동인구(만명)	1,612	861 ¹⁾	
경제활동참가율(%)	57.1	64.5 ¹⁾	
GNP(억달러)	951.1	230 ²⁾	북한이 발표한 82년 1인당 국민소득 2,200 달러 기준으로 하면 82년 GNP는 409.9
1인당국민총생산(달러)	2,296	1,174 ²⁾	북한은 87년 1인당 GNP를 2,400 달러로 발표
계정규모(억달러)	156.5	127.3 ³⁾	북한발표로는 285억 북한원, 87년은 303억 북한원

경지면적(만정보)	241.1	213.6 ⁴⁾	북한발표로는 76년 200만 정보
농가인구	818	710 ⁴⁾	
농가호수(만호)	197	145 ⁴⁾	
수산물생산량(만t)	366	360 ⁴⁾	북한발표(84년)
선박(천t)	665.6	407.3 ⁵⁾	
쌀생산량(천t)	5,607	(粗穀)5,200 ⁶⁾	
보리생산량(천t)	315	(〃)420 ⁶⁾	
밀생산량(천t)	5	(〃)500 ⁶⁾	
옥수수생산량(천t)	113	(〃)2,500 ⁶⁾	
전력생산(백만Rw/h)	64,695	50,000	북한발표(85년)
석유경제능력(만t)	3,546	250 ⁷⁾	
조강생산능력(만t)	1,584	660	북한발표(85년)
구리생산능력(만t)	16.0	7.8 ⁴⁾	
알루미늄생산능력(만t)	1.8	1 ⁴⁾	
공작기계생산능력(만대)	5	3 ⁴⁾	북한발표로는 77년 3만대
자동차생산능력(만대)	65	1.8 ⁴⁾	
조선능력(만대)	300	21 ⁴⁾	
TV수상기보유(만대)	1,248	24 ⁴⁾	
직물생산능력(억m ²)	60	8.4	북한발표(84년)
시멘트생산능력(만t)	2,986	1,200	북한발표(84년)
총무역액(억달러)	662.9	35.7 ⁸⁾	
수출액(억달러)	347.1	15.0 ⁸⁾	
수입액(억달러)	315.8	20.6 ⁸⁾	
외채(억달러)	445.1	40.6 ⁸⁾	
철도총연장(km)	6,324	4,473 ⁴⁾	
지하철연장(km)	111.1	33 ⁴⁾	
도로총연장(km)	53,654	22,000 ⁴⁾	
자동차보유대수(만대)	130.9	20 ⁴⁾	
석탄(만t)	2,449	7,000	북한발표(84년)
화학비료(만t)	285	520	북한발표(84년) 한국은성분합량기준
주택건설(만호)	29	15~20	북한발표(93년목표)연평균임
달걀(억개)	60.3	70	북한발표(93년 목표)
육류(만t)	59.6 ⁹⁾	170	북한발표(93 목표)
과실(만t)	120 ⁹⁾	200	북한발표(93년목표)

자료; 한국측 수치는 한국정부기관 발표

- 1) 국토통일원 발표
- 2) 美 CIA가 추제한 84년기준
- 3) 국토통일원 발표
- 4) 일본환태평양 연구소 자료, 84년기준
- 5) 英國 Economist 발표(86년 기준)
- 6) 英國 EIU 발표(83년 기준)
- 7) 英國 Economist 발표(84년 기준)

8) 국토통일원 발표

9) 농수산부 86년실적자료, 단 과실은 84년기준

10) <이코노미스트> 中央日報社, 1988년 11월號에서 再引用

그러나 南北韓間의 經濟交流의 可能性을 肯定的으로 보는 視角은 첫째, 南北이 88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中·蘇·헝가리 등 共產圈과의 關係 개선과 교역확대에 影響을 받을 것이며 둘째, 1987년부터 1993년까지로 계획된 第3次 7個年計劃에서 輕工業生産擴大와 輸出增大에 역점을 두는 現實主義的經濟路線을 선택했다는 점 셋째, 수차에 걸쳐 고집해 오던 軍事力 增強과 自力更生의 自立經濟政策이 北韓의 經濟建設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다는 점, 넷째 막대한 外債로 인하여 國際的인 公信력이 약화되어 있다는 점, 다섯째 閉鎖的인 經濟路線으로 西歐先進技術의 도입이 원활치 못하여 낙후된 기술 수준을 발전시킬 수 없다는 점, 여섯째 戰爭物資生産爲主의 重工業優先政策으로 소비생활이 지나치게 낙후되어 北韓住民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있다는 점, 일곱째 수차에 걸친 經濟計劃의 실패가 北韓內 經濟管理體制의 硬直性和 投資財源의 不足 技術水準의 落後性 등을 모면하고자 1984년부터 이미 基幹産業의 整備 및 經濟構造改善 등의 內部改革과 外國 投資資本誘致를 위해 '合營法'제정 등으로 對外開放을 시도하고 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南北韓간의 經濟交流가 앞당겨 질수도 있다고 보겠다. 이러한 南北韓의 經濟交流는 雙方間의 經濟的 이득을 줄 뿐 아니라 韓半島의 緊張緩和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므로 長期的인 안목에서 統一을 열원하는 民族的인 課題로서도 바람직한 韓半島의 情勢變化的 狀況을 形成하게 될 것이다.

더구나 南北對決의 시대를 청산하고 理念과 體制의 차원을 넘어서 民族共同體로서 南北韓간의 交流와 協力을 통해 統一氛圍氣를 조성시키겠다는 7.7宣言과 10.7措置가 韓半島의 緊張緩和와 平和무드 造成에 대한 제의마저 있고 보면 南北韓간의 經濟交流는 서로 다른 體制와 理念을 초월한 經濟交流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